

“어? 저 배우가 내 삶을 연기하네”

극중극 형식의 낭만주의적 작품 연희단거리패의 <유랑극단> 공연

연희단거리패의 낭만 대중극 <유랑극단>이 15일 오후 3시와 7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한다. 연희단거리패는 지난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선보여 큰 인기를 얻은 극단으로 이번에 무대

에 오르는 작품 <유랑극단>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보다 더 전문적인 광대성을 갖춘 즉흥극이다. 원작은 류토미리 시모비치의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으로 일제강점기에 ‘아리랑’이란 유랑극단

이 한 작은 마을에서 공연을 하려다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있고 살던 꿈과 환상을 다시 찾아보려는 낭만주의적 작품으로 재구성됐다. 연극과 삶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세상 속에서 연극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자문해 보는 내용으로 차이를 이용한 가두극, 불쇼, 캉캉춤, 신파극 연기, 막간극, 노래 등 다양한 연극적 요소들이 등장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잊혀진

축제의 낭만성을 되살려 준다. 또 다양한 극중극, 공연연습 장면 등은 일상적 연기 양식과 구별돼 완결된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 극중극 속으로 현실이 개입되며 급기야 환상의 공간인 연극과 현실이 뒤섞인다. 비록 현실 속에서 연극의 힘은 미약하지만 물처럼 스며들어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입장료 무료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일동면 경로잔치 성황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실씨가 일동면 경로잔치에 매년 출연해 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일동종합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일동면 지역 노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일동면 경로잔치에서 박영실 국악학원 원생들이 출연해 노인들에게 즐거운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박영실 국악학원과



일동면이장협의회(회장 맹효익)와 일동면새마을지도자남자협의회(회장 김영석), 일동면새마을여자지도자협의회(회장 강한일)가 공동주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2)

까마귀의 효심을 배우자



△ 이희용 포천연극협회 회장 본지 지문위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칭하여 사람들은 들로 바다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데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있고 지내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극을 비롯한 많은 공연예술과 몸으로 하는 모든 예술적 행위는 제일 먼저 신체적인 자격요건과 정하여진 백역에 적합한 지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극에서는 여러 유형의 연기자와 스태프가 필요하며 그 종합적인 상황의 변화를 조율하여 조화의 극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감동으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마치 본인 스스로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의 선천적인 자질은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며 자라하기에 현재의 나를 되돌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드러난 겉모습만을 강조하며 마음과 행동에 스며있는 속사정을

알지 못하여 서로를 속고 속이는 누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삶들이 자칫 올바른 생활인양 가치관의 혼돈을 범하거나 후배나 자식에게 내리기만 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기형적인 사랑만이 보여지고 그것이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될 수 있게 되어있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는 자칫 도덕적 공황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가 도래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들이 현실행위 속에서 효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미흡하고 때로는 자식으로 부모로 진심된 도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가을에 하늘을 보듯이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백안시하고 흉칙하게 여기며 그 울음소리가 불길한 징조로 알려져 있는 까마귀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우리의 고대 문헌에는 까마귀라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이 까마귀는 예언능력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신비한 새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 지혜와 성스러운 신화의 존재로 추앙하는 경우도 있어 극단적인 양면의 특징이 있는 새이다. 그러나 까마귀에게는 다른 새에서 볼 수 없는 한가지 특성이 있다. 중국 명나라 때 의사 이시진의 저서 ‘본초강목’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까마귀는 새끼가 어릴 때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세월이 흘러 어미가 먹이 사냥을 못하게 되면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리는 습성이 있다.’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반포(反哺)이다. 되풀이 반, 먹음 포 까마귀는 어미를 되먹인다는 뜻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반포지효(反哺之孝) 하면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그 업신여기는 새 까마귀보다 더 나은 효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자신 있는 답변이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연로 하셔서 사리 분별이 어려운 부모님을 여행 가져다 모시고 나와 외진 곳에 버리는 행위, 그리고 생 활고에 시달린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천인 공노할 인간성 상실의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사람이 미물인 까마귀 보다 못하다면 이미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기본적인 도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모진 고생으로 자식을 기르시고 생의 고된 연극을 마무리하시는 부모님은 자식의 봉양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잃은 자식은 다시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본인의 도리를 못하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올바른 나를 찾는 길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 ③

연극배우 ‘한대관’



△ 연극배우 한대관

‘아무리 자유로움을 존중하는 직업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 게 아닐까?’

아쉬움에 빠지지만 그에 못지 않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둘 수 없다. “연극은 즉흥이죠. 그 스티일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무대에 서기 전 긴장감, 무대 위에서 바라본 관객들의 시선. 이런 절대 상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지는 자신할 수 없다. 연극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버텨 왔지만 그런 것들이 언젠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일터이다.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 안 되다보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은 점차 커지게 마련.

포천의 유일한 극단 <한내> 10기로 중심배우 중 한 명인 한대관(31)씨를 인터뷰하기로 한 날, 인터뷰 장소에 도착한 그를 보고 머리 속을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면티에 반바지를 입고 실내화

“집 튀쳐나가 뭘 하겠다고”

관객들과 신나게 놀이 한 판 하는 재미 지역극단 힘들지만 여러 사람 노력해 희망

를 끌고 나타난 그는 모자까지 꼭 눌러 써 지나치게 자유로워 보였던 것이다. 오기가 생겼던 탓일까? “인터뷰 할 정도의 인물은 안 되는데?”라고 주저하는 그에게 다짜고 짜 왜 연극을 하게 됐냐고 물었다. “연극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냥 연극이란 게 어떤 것일까 하고요.” 그리고 그는 수줍은 듯 “뉘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였다거나 하는 상투적인 말들은 안 할게요”라고 덧붙였다. 잔뜩 버리고 있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찰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단지 연극이란 게 궁금해 연극부에 들어간 게 10년 연기인생의 처음이었다. 졸업 후 우리나라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로 진출했다. 하지만 대학로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다. “포스터 붙이는 실력은 늘더라고요.”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포천에 내려왔다. 그는 “내 집을 박차고 나가서 뭘 하겠느냐?”고 쓴웃음을 지으며 “고생하니까 좋은 줄더라”라는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말도 덧붙였다. 요즘은 6월에 있을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와 9월에 무대에 올릴 뮤지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 틈틈이 경인방송의 모 프로그램에 연기자로 고정출연하는 등 방송 몇 군데도 출연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은 40여 편으로 기억해냈다. 일년에 네 번 꼴로 무대에 오를 셈이다. 석 달 정도 연습해 한번씩 공연을 하고 나면 허탈감과

“가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길로 들어섰을까 후회해요. 특히 성공한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속상해서 술 먹고, 그런데 그 때뿐이에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본 먼저 집어뜯게 되고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연습하고...” 지역극단의 어려움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극단의 수준을 일단 폄하하고 보는 선입견, 문화 마인드 부족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 부족, 선뜻 나서지 않는 스폰서 등이 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 극단을 살리기 위해 힘들게 뛰어드는 포천연극협회 이희용 회장과 대전대학교 윤우영 교수에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며 “배우들이 노력한 만큼 관객들도 호응해 줄 날들이 오겠지요?”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씩스러운 표정으로 겸손을 보이던 그, 그의 한 마디 한 마디 또한 그다지 좋지 않던 첫 인상을 씻겨내기에 충분하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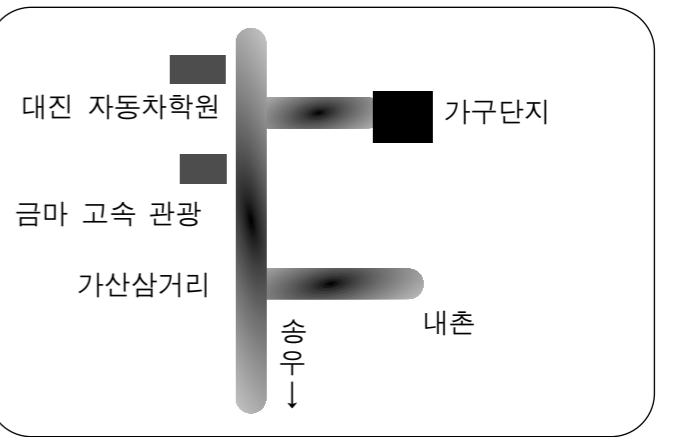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마 고속 관광’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호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복용